

순천시, 공무원 코로나 위로금 지급 논란

1인당 20만 원씩 총 4억5,400만 원 추경 편성 시민들 “제 식구 나눠먹기”...시 “주말 출근 위로”

순천시가 코로나19 대처에 고생한 공무원들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 1인당 20만원씩, 총 4억5,400만원을 지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생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아닌 공무원들에게 위로금을 준다는 것은 예산 집행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한 현금성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선거법 위반 시비마저 불거지고 있다.

1일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순천시의회 제225회 임시회에 제출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가족친화프로그램 지원비 4억5,400만 원이 책정됐다.

가족친화프로그램 지원비는 공무원 670명을 포함한 순천시 공무원 2,270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공무원 670명에는 시의원 24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친화프로그램 지원비 명목으로 예산이 책정됐으나 사실상 코로나19 위로금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31일 추경안에 대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과정에 참석한 순천시 총무과장도 가족친화프로그램 지원비가 코로나19 위로금 성격임을 인정했다.

이 모 총무과장은 관련 질의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소 직원 뿐만 아

니라 행정지원부서 공무원들이 코로나 현장 지도, 점검 등에 동원되는 등 고생한 것에 대한 노조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지난 5월 실시된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김광자 지부장은 코로나19 위로금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공무원 코로나 위로금 지급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

시민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는 충분히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월급에 수당까지 꼬박꼬박 챙기면서 별도의 위로금까지 받겠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도 “한 집 건너 한 집 문을 닫을 정도로 소상공인들은 힘든데, 어찌 보면 가장 피해가 적은 공무원들이 제 밥그릇부터 챙기겠다하니 한심스러울 뿐이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현재까지 공무원에게 코로나19 위로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순천시의회 행정위 추경안 심의과정에 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C의원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매월 급여를 받는 전체 공무원에게 일괄 20만 원씩 지급한다면 시민 정서에서 반하고 제 식구 나눠 먹기로 비칠까 염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주말에 출근하기도 하는 등 많이 지쳐 있다”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위로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생각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은 축소심의와 예정위 의결을 거쳐 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남구 자원봉사지원단 발대식 1일 오후 광주시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남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발대식 및 협약식'에 참가한 김병내 남구청장, 박희울 남구의장, 반정환 남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재난에 강한 남구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보건노조-정부 막판 협상 결렬시 총파업 공공의료 확충·인력 기준 개선 등 쟁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노조(보건의료노조)가 2일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노조와 정부가 1일 마지막 협상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만나 제13차 노정 실무협상에 나섰다.

양측은 지난 3개월간 12차례 교섭해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공공병원 신설·확충, 인력 기준 개선 등 일부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막판 협의의 시작에 앞서 협상장을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조금만 방식하면 역병으로 피해가 큰 상황에서 온갖 희생을 오롯이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승적 결단을 해주길 요청

드린다”며 “여러분이 합의해서 관철하면 정부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협상이) 결렬되면 총파업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복지부가 전향적 교섭안을 갖고 이 자리에 선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활자를 두고 나갈 수 없도록 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희도 (협상이) 1~2번으로 끝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오늘은 정말 마지막 교섭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하루 뒤인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연합뉴스

북구,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지원 총력

3개 분야 19개 과제 추진

광주 북구가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에 소매를 건넸다.

1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0월 31일까지 열리는 제9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지원하고자 ▲자체사업 ▲연계사업 ▲지원사업 등 3개 분야 19개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자체사업으로는 ‘전시과 일원 국화전시’, ‘(사)아시아문화예술협회 등 문화예술단체 참여 공연’, ‘음악회 및 버스킹’, ‘코로나19극복 힐링투어’, ‘28개동 주민 참여 자율행사’ 등을 통해 행사 분위기를 돋운다.

연계사업으로 북구청갤러리, 자미갤러리, 금봉미술관 3곳에서 지역 작가들의

특별 기획전이 열리고 비엔날레-북구 및 있는 예술여행센터-광주호호수생태원코스의 ‘비엔날레 특별 관광버스’가 운행된다.

위치기반 모바일 앱을 활용한 게임형 증강현실 프로그램인 ‘비엔날레 런닝맨’을 운영, 체험의 재미를 더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열린 제13회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각광을 받은 ‘미디어파사드’ 공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운영된다.

아울러 불법 광고물·노점상 정비, 행사장 주변 교통·청소대책 추진, 공중화장실 관리·방역, 음식·숙박업소 친절서비스 교육 등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최환준 기자

‘불법 대리수술’ 광주 척추전문병원 신병처리 ‘주목’

검찰, 6명 입건자 중 3명 구속영장 반려 경찰, 증거 분석 자문받아 재신청 예정

불법 대리 수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광주 A 척추 전문병원 입건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1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 A 척추 전문병원 관련 대리 수술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분석 자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A 척추 전문병원에서 2018년 간호조무사들로 채용된 이들이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수술한 정황을 인지,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 등 총 6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입건자 중 동영상 증거에 대리 수술 정황이 찍히는 등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의사 2명, 간호조무사 1명

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반려했다.

경찰은 빠른 신병 처리를 위해 사실 의료기관에 증거 관련 자문을 받아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공인된 의료 기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에 동영상 증거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의협 측은 동영상에 찍힌 의료 행위가 수술 등 의료 행위인지 여부를 분석해, 자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자문 결과를 받으

면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 대리 수술 사건에서 경찰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 광주지역 대리수술 사건에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A 병원 사건에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인천 사례가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광주 경찰도 적용 혐의를 재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환준 기자

제1회 ‘힌즈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작 발표

5·18기념재단은 2021년 제1회 힌즈페터 국제보도상의 경쟁 부문 3개, 비경쟁 부문 1개 수상작이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수상작은 ▲기호에선 세계상에 “Don't be Afraid”(Belsat TV, Mikhail Arshynski), ▲뉴스 부문에 “Myanmar Army Steps up Enforcement Level”(CNA Yangon Bureau, Norman & Collin), ▲특집 부문에 “Desperate Journey 1, 2”(Freelance

, Bruno Fderico)이 선정됐다. 비경쟁 부문인 ▲오월광주상에는 고 유영길(Young-gil Yu) 당시 미국 CBS 서울지국 영상 기자가 선정됐다.

2021년 제1회 힌즈페터 국제보도상 조 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5·18기념재단에서 2021년 제1회 힌즈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작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제1회 힌즈페터 국제보도상 시상식은 오는 10월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오선우 기자

상무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매매 분양)	당진신축(원룸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p>1) 40평(전용) 2억 3천(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4억3천(용2억6천) 보2천 월200</p> <p>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5억8천(용 3억6천) 월수익 280만 (보4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홍,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p>광주에서 20분 (6M 도로접) 장성담(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200평,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물류창고, 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p> <p>010-6670-9800</p>	<p>◆ 월수익 750만</p> <p>◆ 연수익 9천만</p> <p>◆ 매매 13억 (용6억 5천)</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림 10년간 임대걱정 없음. 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 엘리정유, 입주및공사시작, 엘리베이터 있음, 주인세대있음.</p> <p>010-6670-9800</p>	<p>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p> <p>① 기초반, 실전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반, 실전 (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엔비엘전문) ④ 전문반 모집(직업가능,수익가능)</p> <p>• 전문반무료제공 - 책상, 컴퓨터 제공,매주1회물건스터디</p> <p>광주 광산구 신가동(아파트)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4천 (9/8) 서구 치평동(아파트) ▶ 감정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 (9/14) 광산구 도산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2억3천 (9/16) 북구 문흥동(근린상가) ▶ 감정가 13억4천 -> 최저가 1억5천 (9/17) 북구 신용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9/17) 광산구 우산동(근린주택) ▶ 감정가 18억 -> 최저가 13억 (9/28)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 (9/28)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14억9천 -> 최저가 6억6천 (9/28)</p> <p>전남 회순군 도곡면(근린시설) ▶ 감정가 10억 -> 최저가 5억9천 (9/16) 회순군 백야면 (근린시설) ▶ 감정가 13억 -> 최저가 4억8천 (9/28) 여수시 신가동(근린주택) ▶ 감정가 12억 -> 최저가 8억 (10/5) 장성군 황룡면 (공장) ▶ 감정가 68억 -> 최저가 19억 (10/6) 목포시 대양동(임야) ▶ 감정가 12억7천 -> 최저가 7천 (10/12)</p> <p>시외 충남 홍성군 장곡면(근린주택) ▶ 감정가 6억3천 -> 최저가 2억1천 (9/14) 부안군 변산면(숙박시설) ▶ 감정가 4억 5천 -> 최저가 2억 2천 (9/27)</p> <p>062-382-5500</p>